

# 특허심사기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단축

특허청은 2005년 1월을 기준으로 21개월인 특허심사기간을 2006년 말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10개월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특허심사인력 2백 명과 심판관8명을 포함한 총 2백 48명을 증원하고 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3개 심사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제개정안을 지난 2월 1일 국무회의에 의결하였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은 지난해 31만 건이 출원되어 세계 4대 출원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심사기간이 장기화되어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연 등이 초래되고 있어 심사기간 단축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

이에 특허청은 2005년도 상반기에 심사관 1백70명과 심사보조인력 30명 및 기구신설 인력 등을 채용하여 현 심사부서의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하반기에도 37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특허 정책 및 심사지원부서에 충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심사인력이 채용되면 현재 21개월인 특허심사기간이 2005년 말에는 17.8개월, 2006년도 말 경에는 10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 18.3개월('03년), 일본 25개월('03년) 등과 비교해 상당히 단축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특허심사기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독일 수준으로 단축된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심사기간단축을 위한 심사능력 제고를 위하여 선행 기술조사 아웃소싱의 지속적 추

진, 행정 보조인력의 심사업무 전환배치, 지능형 검색시스템의 구축 등 자구노력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특허청은 현재(2004년 말 기준) 12개월 소요되는 특허심판처리 기간을 2006년도 말까지 6개월로 단축하기 위하여 특허심판 인력 8명(4급)을 2005년 2월에 충원, 심판청구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2006년도에 추가 증원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그동안 환경화학 및 전자상거래분야의 출원증가에 따라 이들 분야에 대한 전문심사를 위하여 환경화학심사담당관과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을 신설할 뿐 아니라, 국제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국제상표심사담당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 '세덱스와 페덱스는 다르다'

미국의 물류서비스회사인 페덱스가 신세계 계열 물류서비스회사인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의 'SEDEX' 서비스표에 대해 특허청에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패했다.

지난 2월 13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SEDEX와 FedEx는 호칭과 관념이 다르다'며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에서 '두 서비스표는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인식되는 어두(語頭)부분의 발음이 현격히 다르다'며 '둘 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관념상으로도 유사성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비스표는 상품에 대해 등록되는 상표와는 달리 광고업, 통신업, 운송업 등 서비스업에 대해 등록된다.

페덱스는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가 지난 2001년 10월 SEDEX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자 'SEDEX는 FedEx를 모방한 것'이라며 등록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SEDEX 서비스표를 등록시켰으며, 페덱스는 2004년 8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 특허청, 정책 강화 위해 산업재산정책과 신설

특허청은 국가 지식재산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발명정책국'의 명칭을 '산업재산정책국'으로 변경하고 '산업재산정책과'를 신설하였다.

지난 '77년 개청 이래 특허청은 특허심사 대기기간 단축에 주력해 오면서 산업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을 위한 인프라도 꾸준히 정비하여 왔으나, 전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아직도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서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특허정보의 체계적 활용 미흡 등 전반적인 지식재산 활동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특허

청은 지식재산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재산정책과를 신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금번 '산업재산정책과' 발족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심사대기기간의 단축과 함께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정보의 전국가적 활용 촉진으로 R&D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국가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지식창출기반의 확충과 기술거래 사업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범국민적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로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위한 사회저변 환경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정책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전략인 '지식재산정책기본계획'을 수립·제시하고,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특허전문가로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수립·집행시 자문제공 및 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식재산 정책상황실'을 설치하여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의제를 적기에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재산정책국은 이번에 신설된 산업재산정책과와 산업재산진흥과, 산업재산보호과, 국제협력과로 세분화되어 있다.

## 바른손과 바른손카드, 분쟁 타결



### BARUNSONCARD

㈜바른손은 ㈜바른손카드로부터 상표 및 상호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구업체 ㈜바른손은 카드제작업체인 ㈜바른손카드로부터 상표 및 상호에 대해 사용료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른손은 상표 사용료로 일단 1억5천만 원을 2006년 3월말까지 2회로 나눠

받고, 바른손카드의 2004년 결산 매출액이 1백12억3천5백만원(평균 연매출 1백7억원의 105%)을 초과할 경우에는 오는 4월말까지 추가로 7천5백만원을 받기로 했다.

또 바른손은 상호 사용료로 올해부터 바른손카드에서 연간 매출액의 0.8%를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바른손측은 자사와 바른손카드를 함께 운영했던 대주주의 지분이 바뀐 뒤에도 바른손카드가 '바른손' 상호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서울지방법원에 '상호 및 서비스표 사용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바른손 관계자는 '상표권 분쟁이 해결됨에 따라 바른손카드는 적법하게 상호와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바른손은 매년 1억원 가량의 상호 사용료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슬라이드형 휴대폰 특허 출원 급증



최근 특허출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슬라이드형 휴대폰.

최근 LCD 윈도우 하단을 손가락으로 살짝만 밀어 올리면 휴대폰 커버가 스르르 열리는 슬라이드형 휴대폰에 관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은 슬라이드폰 관련 출원이 2001년에는 14건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29건에 이어, 2003년에는 종래의 주력 제품인 폴더형(77건)을 추월한 1백15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04년에도 1백24건 출원되었다고 밝혔다. 특허출원을 통한 휴대폰 외형의 진화 형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84년의 바(BAR)형 이후 플립형이 '98년 30건으로 정점을 이룬데 이어, 폴더형은 2003년에 77건, 2004년 30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슬라이드형은 2003년에 1백15건, 2004년에는 1백24건이 출원된 것으로 보아 휴대폰이 슬라이드형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대형 LCD 화면과, 바 타입에 익숙한 유럽인들의 취향 등으로 보아 이에 부합되는 슬라이드폰 관련 출원의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 / 면 / 안 / 내**

- 2 특허심사기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단축
- 3 특허청, 여성발명활성화 종합 대책 수립
- 4 상품 대신 특허기술을 팝니다
- 5 특허정보 서비스 인프라 구축한다
- 6 변호사와 변리사 간 싸움 치열해질 듯
- 9 인물 FOCUS·㈜아이엔 정미희 대표이사(이지쓰 부사장)
- 10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발명교육센터
- 13 일본 지재권 침해건수 절반, 한국제품
- 14 중기청, 신기술 사업타당성 평가해준다